

자조금제도란?

양돈인 여러분!
다함께 자조금제도 입법을 위한 동의서
취합에 참여합니다.

1. 자조금이란?

자조금은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봉급에서 일부를 공제(check-off)하여 조합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한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동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돼지고기, 우유, 쇠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물론 옥수수 등 곡물에 이르기까지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기 자기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산업사회에서 자조금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양돈산업을 더욱 활기있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소비홍보, 신제품개발과 각종 연구·조사사업 등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가 해줄수도 없고 어느 개인이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선전해 보았자 자기농장 돼지만 잘팔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을 협회가 자조금으로 해나갈 수 있으며 외국의 협회들은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돼지고기라는 상품을 선전하고 기업은 자기 상표를 선전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는 증가하고 양돈산업은 발전해서 자조금을 낸 양돈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협회는 돼지고기라는 상품을 선전하고 기업은 자기 상표를 선전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는 증가하고 양돈산업은 발전해서 자조금을 낸 양돈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자조금제도는 어째서 합리적인가?

자조금은 돼지를 판매할 때 도축장에서 일 정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모든 양돈인이 규모에 비례해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소비가 증가하면 값을 더 받게 되어, 돌아오는 혜택도 규모에 따라 비례하므로 아주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공짜로 남의 덕을 보는 암체족도 끼어들지 못하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적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4. 자조금으로 무슨 일을 하나?

자조금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 할수없는 소비홍보나 개인이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신제품 개발이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나 저해하는 모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조사연구사업 등에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5. 자조금을 내게 되면 양돈업자의 부담이 무거워 질터인데...

자조금은 생산비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적은 액수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납부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모여 큰 돈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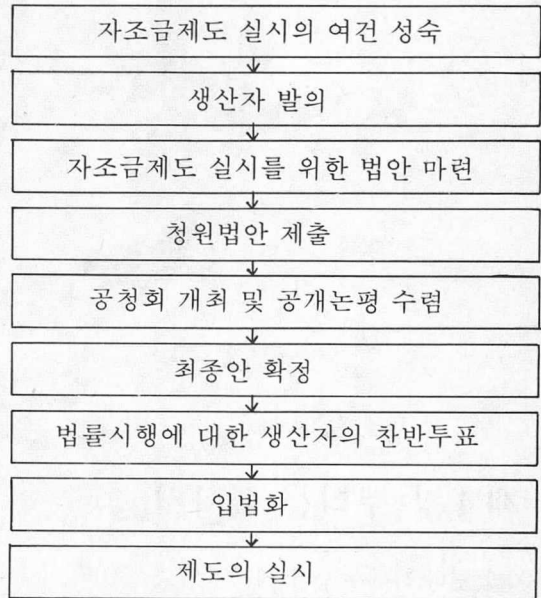
6. 왜 귀찮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입법조치는 꼭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하니 "정부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양돈인이 자조금제도를 찬성한다는 확증이 있어야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는 것이며, 법을 만들어야 무임승차하는 암체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법을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본 구상 *



자조금제도의 실시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해야 합니다. 공청회등을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자조금제도를 시행하려면 공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며 모든 양돈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대표성이 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모으기가 쉽도록 도축장 등에서 일정율로 떼도록 해야 합니다.

대다수 양돈농가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자조금에 투입된 돈보다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